

알버타의 회복적 사법 강화

2024년 11월 06일 [미디어 문의](#)

알버타 주정부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72만 달러를 투자합니다.

알버타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와 지자체는 이제 72만 달러의 회복적 사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보조금은 공식적인 법원 시스템의 밖에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유의미한 해결 및 지역 회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계획들을 지원합니다. 회복적 사법은 범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영향에 대해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책임성, 치유 및 화해를 촉진합니다.

“회복적 사법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정의, 책임성 및 화해를 향한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알버타 회복적 사법 보조금은 지역사회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.”

미키 애머리 (Mickey Amery), 법무부 장관 및 법무상

지역사회 기반 연합, 등록된 비영리 단체, 원주민 사회, 청소년 사법 위원회, 지자체 등 적격 지원자는 최대 5만 달러의 개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은 12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.

간략한 정보

지원자는 알버타에 거주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:

- 등록된 비영리단체 및/또는 등록된 자선 단체 (유효한 등록 상태)
- 지정된 재정 대리인이 있는 지역사회 기반 연합 및 네트워크 그룹
- 밴드 및 부족 협의회를 포함한 원주민 사회
- 현재 핵심 업무 관련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사법 위원회는 현재 법무부로부터 자금을 받고있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

관련 정보

- [알버타 회복적 사법 보조금](#)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
미디어 문의

[치넨예 아노쿠루 \(Chinenye Anokwuru\)](#)

780-720-1915

법무부 수석 언론 비서관